

## 군지역 주민들의 이주의사 분석\*

이은우  
경제학과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주의사 결정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이주로 인해 수익을 보다 많이 얻을 수 있는 계층, 즉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이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적자본 인구이동이론이 개인의 이주의사 결정에 잘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연령과 학력이 이주의사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이주희망자와 비이주희망자로 구분하여 거주지의 생활환경과 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주희망자가 비이주희망자에 비해 여러 면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Migration Plans of Rural Residents

Lee, Eun Woo  
Dept. of Economics

###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intention to migrate for inhabitants of 'Gun'(county) area, and estimated migration intention function. The result of estimation show that young and highly educated people who can get higher benefits from migration have higher propensity to intend to migrate. This result implies that human capital approach is quite appropriate to explain individual decision making for migration.

---

※ 이 논문은 울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In addition, we estimated the marginal effect of age and schooling to migration intention. Finally, for the divided groups, migration intending group and non-intending group, we compared the satisfaction level for living environments and housing, and found that migration intending group has lower satisfaction level in many respects.

## I. 서론

한국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외향적 공업화 정책에 힘입어 괄목한만한 성장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급격한 구조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종래의 농업 위주에서 광공업 및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었다. 경제의 성장은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증가시켜 소비수준을 한층더 높였다. 그러나 경제성장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 문제이다. 즉 제조업과 농림업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게 되었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때문에 농촌인구는 과소한데도 불구하고 농촌주민들은 도시로 꾸준히 이주해가고 있다. 도시로의 지나친 인구집중은 주택,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한편 농촌인구의 지나친 유출은 여러 부분에서 규모의 경제를 상실케 하여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부문의 폐쇄를 유발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에 인구가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농촌에 적정인구가 거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 주민의 이주의사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현거주지를 떠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현거주지를 떠날 의사가 강한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역간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데는 여러 이론이 있으나 이주 자체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행위로 보고 투자에 대한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이주가 일어난다는 인적자본 인구이동이론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의사도 이주행위와 마찬가지로 이주로 인해 많은 수익을 얻는 계층이 이주의사가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제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적자본이론이 이주의사 결정에도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제까지 이주의사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소규모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한 지역을 떠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것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거의 없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군부지역 주민들의 이주의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용할 자료는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한국가구패널조사'의 원자료이다.<sup>1)</sup> 이 자료는 1994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 1차년도 자료, 즉 1993년의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1994년 8월에 발표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 이유는 제 1차년도의 자료에 비해 제 2차년도 이후의 자료는 표본수가 많이 감소하였기

1) '한국가구 패널조사'의 내용과 표본추출 방법에 대해서는 대우경제연구소(1994)를 참조할 것.

때문이다.

이 '한국가구패널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정하였고 '가구'와 '개인' 두 종류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제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수는 4,547호이고, 개인수는 10,460명이다. 이 조사의 '가구'편에는 각 가구주에게 1년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주의사가 강한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II장에서는 이 연구의 기초이론인 인적자본 인구이동이론에 대해 고찰한다. 제 III장에서는 이주의사 결정함수를 추계하고 어떤 특성이 가진 사람이 이주의사가 강한가를 고찰한다. 이와 함께 각 변수들이 이주의사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측정한다. 제 IV장에서는 이주희망자와 비이주희망자로 구분하여 거주지의 생활환경과 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의 논의에 대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II. 인적자본 인구이동이론

인구이동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다수 개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이주행태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는 인적자본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개인의 이주행위를 교육, 훈련 등과 마찬가지로 인적자본 투자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Sjaastad(1962)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된 이론이다. 그는 이주를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투자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비용보다 클 때 이루어진다. 인적자본 인구이동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주지에서의 미래소득의 현재가치와 현 거주지에서의 미래소득의 현재가치와의 차이가 이주비용보다 클 경우 각 개인은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1)식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내어진다.

$$(1) \quad PV_{ij}(0, T) = \int_0^T e^{-\rho t} [Y_j(t) - Y_i(t)] dt - C_{ij}$$

이 식에서  $T$ 는 앞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고,  $0$ 은 현재의 시점을 나타낸다.  $Y_j(t)$ 는  $j$  지역으로 이주한 후의  $t$  시점에서의 소득을 나타내고,  $Y_i(t)$ 는 이주하지 않고  $i$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때의  $t$  시점에서의 소득을 나타낸다. 그리고  $C_{ij}$ 는  $i$  지역에서  $j$  지역으로 이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낸다. (1)식에서  $PV_{ij}(0, T)$ 가 0보다 크면 이주로 인한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 개인은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인 면에서도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에도 다수 이용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Bowles(1970)는 미국의 인구이동에 관한 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이주경향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이주로 인한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인적자본 인구이동이론이 인구이동 현상을 잘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aluzny(1975)는 미국 개별가구자료를 이용하고, Laber and Chase 는 캐나다의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두 경우 모두 인적자본이론이 현실의 인구이동을 잘 설명한다고 하였다. Polachek and Horvath(1977)는 Sjaastad의 모형을 확장하여 한번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이주하는 경우, 즉 후속인구이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 모형을 확장하였다. Yezer and Thurston(1976)은 Sjaastad의 모형에 직업탐색이론을 도입하여 후속인구 이동현상을 설명하게 하였다. Allen(1979)은 Yezer and Thurston의 모형에 정보효과(information effect)를 도입하여 모형을 확장한 후, 1970년의 미국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한편 Schaeffer(1985)는 최적제어이론을 인적자본 인구이동이론에 도입하여 교육수준과 연령이 변함에 따라 개인의 이주경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이론을 여러 측면에서 보완해 주는 것이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주경향이 감소하고,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주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동태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III. 이주의사 결정함수

이 장에서는 1993년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이주의사 결정함수를 추정하기로 한다. 즉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중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현거주지를 떠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가구 패널조사’에는 ‘—님 때에는 앞으로 1년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라는 물음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군지역 주민들의 이주의사를 분석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1년내에’라는 단서가 있어 개인의 특성과 이주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이 항목 이외에 이주의사에 관한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기로 한다.

군지역 거주자 868명 중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0명,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은 798명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주의사 결정함수를 구하기로 한다.

이주의사 결정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주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가 종속변수가 되고, 그것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독립변수가 된다. 종속변수가 질적인 변수인 경우, 예를 들면 본 연구의 경우와 같이 이주할 의사가 있다, 없다 등의 경우에는 보통최소자승법(OLS)으로 회귀분석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 경우에는 로지트(logit)모형이나 프로비트(probit)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프로비트 모형을 이용하기로 한다. 독립변수로는 인적자본이론에 의거하여 응답자의 제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로 한다. 즉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가족수, 그리고 주거형태 등이다. 이들 독립변수들을 모두 몇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더미변수 형태로 변환하였다. 프로비트 모형을 이용하여 이주의사 결정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함수식은 (2), (3)식과 같다.

2) logit 모형과 probit 모형의 내용과 특성에 대해서는 Maddala(1985) 참조할 것.

$$(2) \quad P_i = F(Z_i) = \frac{1}{\sqrt{2\pi}} \int_{-\infty}^{Z_i} e^{-\frac{s^2}{2}} ds$$

(3)

$$Z_i = F^{-1}(P_i) = a_0 + a_1 GEND + a_2 AGE2 + a_3 AGE4 + a_4 AGE5 + a_5 AGE6 + a_6 EDUC0 \\ + a_7 EDUC2 + a_8 EDUC3 + a_9 EDUC4 + a_{10} AGRI + a_{11} FSIZE + a_{12} HOUS$$

여기서  $P_i$  : 이주 의사 정도(이주할 의사가 있으면 1, 없으면 0)

$GEND$  :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

$AGE2$  : 29세 이하이면 1, 기타 0

$AGE4$  : 40-49세이면 1, 기타 0

$AGE5$  : 50-59세이면 1, 기타 0

$AGE6$  : 60세 이상이면 1, 기타 0

$EDUC0$  : 무학이면 1, 기타 0

$EDUC2$  : 중졸(중퇴 포함)이면 1, 기타 0

$EDUC3$  : 고졸(고퇴 포함)이면 1, 기타 0

$EDUC4$  : 전문대 이상이면 1, 기타 0

$AGRI$  : 직업이 농림어업이면 1, 기타 0

$FSIZE$  : 가족 규모

$HOUS$  : 주거형태(전, 월세의 경우 1, 자가의 경우 0)

<표 1>은 (2), (3)식에 의해 이주 의사 결정함수를 추정한 것이다. 즉 종속변수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를 1, '없다'를 0으로 놓고 프로비트 모형에 의해 함수를 추정한 것이다. 독립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를 몇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적자본이론으로 제반 현상을 분석할 경우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변수는 연령수준과 교육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수준과 교육정도가 이주 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연령수준과 교육정도를 분리해서 분석을 하고 다음으로 이들 변수를 동시에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로 한다.

(가)식에서는 독립변수로 성별더미변수와 연령더미변수를 사용했고, (나)식에서는 성별 더미변수와 학력더미변수를 사용했고, (다)식에서는 성별더미변수, 연령더미변수, 그리고 학력더미변수를 사용했다. 그리고 (라)식에서는 독립변수로 성별더미변수, 연령더미변수, 학력더미변수, 직업더미변수, 그리고 가족규모를 사용했다.

<표 1>의 방정식에서 성별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 남성, 연령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 30-39세 연령층, 학력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 국졸(국퇴 포함), 그리고 직업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 농림어업을 제외한 기타직업이 기본(base)으로 제외되었다. 따라서 각 더미변수 계수들의 값은 이들 제외된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도시로 이주할 의

사가 강한가 또는 약한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표 1>에서 먼저 성별을 나타내는 *GEND*의 계수를 보면 4개의 방정식 모두에서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농촌을 떠날 의사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어 그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여자가 농촌을 떠날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인구센서스 자료에도 뚜렷이 나타나 있다. 인구센서스는 매 5년마다 조사되고 있는데, 인구가동이 조사된 1970년 부터의 센서스 자료를 보면 모든 경우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숫자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이은우, 1993; 64-65)

연령에 따라 도시로 이주할 의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고찰해 보기 위해 (가), (다), (라)식을 보면 모두의 경우에서 *AGE4*, *AGE5*, 그리고 *AGE6* 모두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고, 그 절대값이 연령수준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으로 제외된 계층인 30대에 비해 40대, 50대, 60대 모두 농촌을 떠날 의사가 작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주 의사는 연령수준이 증가할 수록 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AGE2*의 부호는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20대는 30대에 비해 현거주지를 옮길 의사가 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AGE5*, *AGE6*는 모든 경우에서 5%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어 그 관계가 명확하나, *AGE2*의 경우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어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에 따라 이주할 의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 (나)식에서는 *EDUC2*, *EDUC3*, *EDUC4*의 계수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 그 값이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이주 의사가 강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식과 (라)식을 보면 *EDUC4*의 계수는 양의 값을 나타내나 *EDUC2*는 음의 값을 나타낸다. 이것은 국졸자에 비해 중졸자가 이주 의사가 약하나 전문대 이상 학력자는 이주 의사가 국졸자 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DUC0*의 계수는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무학자가 국졸자에 비해 이주 의사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나 그러나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어 그 관계가 분명하지는 않다.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이주 의사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의 종류가 이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 직업을 농업과 비농업으로 구분하여 농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직업을 농업과 비농업으로 구분한 것은 표본가구 868호 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409호로 거의 절반이 되고, 농업과 비농업은 직업 속성상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AGRI*의 계수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어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비농업에 종사하는 자보다 이주 의사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나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어 그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가족규모도 이주 의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족규모가 클수록 현거주지를 떠나는데 경제적인 비용이외에 심리적인 비용 등이 보다 많이 수반될 것이다. 가족규모를 나타내는 *FSIZE*의 계수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규모가 클수록 이주 의사가 약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계수는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다.

그리고 주거형태도 이주 의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자가보다는 전, 월세 주

택에 거주하는 자가 이주의사가 강할 것이다. 왜냐 하면 자가의 경우 전, 월세의 경우보다 많은 이주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의 매매에 많은 부대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전, 월세의 경우도 많은 이주비용이 소요되나 그 정도는 자가의 경우에 비해 훨씬 작다. 본 연구에서도 *HOUS*의 부호가 양의 값을 나타내 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자가에 거주하는 자보다 이주의사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계수는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

<표 1> 이주의사 결정함수(Probit 함수)

	(가)	(나)	(다)	(라)
<i>constant</i>	-0.9576** (0.1066)	-1.7797** (0.1429)	-1.1938** (0.2148)	-1.1483** (0.3230)
<i>GEND</i>	0.2045 (0.2150)	0.1252 (0.2193)	0.1798 (0.2250)	0.0758 (0.2372)
<i>AGE2</i>	0.2684 (0.2640)		0.2669 (0.2672)	0.1844 (0.2727)
<i>AGE4</i>	-0.5303** (0.1763)		-0.3650 (0.1936)	-0.2767 (0.2004)
<i>AGE5</i>	-0.8244** (0.1893)		-0.6567** (0.2192)	-0.4981* (0.2303)
<i>AGE6</i>	-0.9861** (0.2064)		-0.9061** (0.2692)	-0.7723** (0.2872)
<i>EDUC0</i>		0.1046 (0.2349)	0.3159 (0.2567)	0.3033 (0.2606)
<i>EDUC2</i>		0.1312 (0.2182)	-0.0565 (0.2311)	-0.0663 (0.2327)
<i>EDUC3</i>		0.4822** (0.1796)	0.0630 (0.2119)	-0.0018 (0.2200)
<i>EDUC4</i>		1.1477** (0.2032)	0.6421** (0.2412)	0.5230* (0.2530)
<i>AGRI</i>				-0.1413 (0.1671)
<i>FSIZE</i>				-0.0309 (0.0407)
<i>HOUS</i>				0.3878* (0.1570)
Log Likelihood	-222.2	-224.5	-215.6	-211.1
표본수	868	868	868	868

1) ( )안은 표준오차

2) \*\* :1% 수준에서 유의      \* :5% 수준에서 유의

이제까지 개인의 속성이 이주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이것에서 볼 때 인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주의사의 경우에서도 인적자본 이론이 잘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이주의사가 강해진다는 것이 이 사실을 나타낸다. 이것은 연령수준이 낮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이주로 인해 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족규모가 클수록 이주의사가 약해진다는 것은 이주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 사실에서도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과 비용에 의해 각 개인이 이주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등 각 변수들이 이주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이제 연령과 교육수준이 변할 때 이주의사가 어느 정도 변하는가, 즉 연령과 교육수준이 이주의사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파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3)식과 같은 이주의사 함수를 추계하였다. 여기서  $P_i$ 와  $F(Z_i)$ 는 (2)식에서 정의된 것과 같다.

$$(4) \quad Z_i = F^{-1}(P_i) = b_0 + b_1 GEND + b_2 AGE + b_3 EDUC + b_4 AGRI + b_5 FSIZE + b_6 HOUS$$

(4)식에서는 연령과 교육정도가 더미변수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령수준과 교육연수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추정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의 결과를 보면  $GEND$ ,  $AGRI$ ,  $FSIZE$ ,  $HOUS$ 는 <표 1>의 경우와 부호가 같고, 5% 수준에서 유의성의 유무도 같다. 나머지 변수인  $AGE$ ,  $EDUC$ 의 경우를 보면,  $AGE$ 의 경우 계수의 부호가 음의 값을 나타내고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 이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지역으로의 이주의사가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EDUC$ 의 경우 부호가 양의 값인데, 이것은 교육정도가 증가할수록 타지역으로의 이주의사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다. 실제의 경우 학력수준도 이주의사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EDUC$ 의 계수값의 절대값이  $AGE$ 에 비해 매우 작고, 유의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AGE$ 와  $EDUC$ 간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변수  $AGE$ 가 변수  $EDUC$ 가 설명할 부분을 많이 설명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표 2>에 나타난 결과를 이용하여  $AGE$ 와  $EDUC$ 가 이주의사에 미치는 한계효과, 즉 연령이 1세 증가하고,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이주의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한계효과를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의사 정도를 나타내는  $P_i$ 를 각 독립변수에 대해 편미분한 것이 각 변수들의 이주의사에 대한 한계효과를 나타낸다. 임의의 독립변수를  $X_i$ 라고 하면 각 독립변수들이 이주의사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5)식과 같다.



<표 2> 이주의사 결정함수(Probit 함수)

변수	계수 (표준편차)
stant	-0.0762 (0.5457)
<i>GEND</i>	0.1308 (0.2358)
<i>AGE</i>	-0.0264 (0.0076)**
<i>EDUC</i>	0.0063 (0.0212)
<i>AGRI</i>	-0.1475 (0.1637)
<i>FSIZE</i>	-0.0602 (0.0472)
<i>HOUS</i>	0.4068 (0.1534)**
Log Likelihood	-214.40
표본수	868

1) ( )안은 표준오차

2) \*\* :1% 수준에서 유의      \* :5% 수준에서 유의

$$(5) \frac{\partial P_i}{\partial X_i} = \frac{\partial F}{\partial Z} \frac{\partial Z}{\partial X_i} \quad \text{또는} \quad \frac{\partial P_i}{\partial X_i} = f(Z_i)\beta$$

(5)식에서  $f(Z_i)$ 는 누적확률밀도함수인  $F(Z_i)$ 를  $Z_i$ 에 대해 편미분한 식으로  $Z_i$ 의 값에 대응하는 표준정규분포함수의 각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beta$ 는  $Z_i$ 를 독립변수  $X_i$ 에 대해 편미분한 것으로 프로비트 함수의 각 계수값을 나타낸다.

이 방식에 의해 이주의사에 대한 한계효과를 구한 것이 <표 3> 이다. 이주의사는 소득 계층과 직업 종류에 의해 6개 그룹으로 나누어 구해졌다. 먼저 소득계층을 3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소득계층 1은 하위 3분의 1 계층, 즉 월평균소득이 47만원 미만인 가구를 나타내고, 소득계층 2는 다음 3분의 1 계층, 즉 월평균소득이 47만원 이상 119만원 미만인 가구를 나타내고, 소득계층 3은 상위 3분의 1 계층, 즉 월평균소득이 119만원 이상인 가구를 나타낸다. 그리고 직업은 농업과 비농업부문으로 분류하였다.

&lt;표 3&gt; 이주의사의 평균치와 주요변수들의 이주의사에 대한 한계효과

이주의사의 평균치	이주의사의 평균치	p. d. f.	연령의 한계효과	교육연수의 한계효과		
소득계층1	0.0346	농업	0.0309	0.0655	-0.0017	0.00041
		비농업	0.0421	0.1126	-0.0030	0.00071
소득계층2	0.0727	농업	0.0385	0.0721	-0.0019	0.00045
		비농업	0.1006	0.1826	-0.0048	0.00115
소득계층3	0.1345	농업	0.0558	0.0863	-0.0023	0.00054
		비농업	0.1659	0.1918	-0.0051	0.00121
전체	0.0806			0.1181	-0.0031	0.00074

한계효과를 구하기 전에 먼저 소득계층별, 그리고 소득계층과 직업별로 이주의사의 평균치를 구하였다. 먼저 소득계층별로 이주의사의 평균치를 보면 소득계층 1은 0.0346, 소득계층 2는 0.0727, 소득계층 3은 0.1345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농촌주민들이 현거주지를 떠날 의사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계층별로 농업종사자와 비농업종사자로 구분하여 이주의사를 구해 보았는데, 세 소득계층 모두 비농업 종사자가 이주의사가 농업종사자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p.d.f.는  $Z_i$ 에 대응하는 표준정규분포 확률밀도함수의 값, 즉  $f(Z_i)$ 의 값을 나타낸다. 이 p.d.f.의 각 값에 <표 2>의 이주의사함수의 각 계수, 즉  $AGE$ 의 계수 -0.2641을 곱한 것이 연령의 한계효과이고,  $EDUC$ 의 계수 0.0063을 곱한 것이 교육연수의 한계효과이다.

소득계층1의 경우를 보면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이주의사는 0.0017만큼 감소하고,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하면 이주의사는 0.00041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그룹도 비슷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p.d.f. 값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이주의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종사자에 비해 비농업종사자의 p.d.f. 값이 높기 때문에, 농업종사자에 비해 비농업종사자의 이주의사가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IV. 이주이유, 생활환경 및 주택에 대한 만족도

이제 농촌거주자 868명 중 앞으로 1년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70명을 대상으로 이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들이 응답한 이주하려고 이유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이주하려고 하는 이유

이주하려고 하는 이유	빈도수(비율)
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28 (40.0)
직장이동	16 (22.9)
분가 및 합가	5 ( 7.1)
자녀교육 때문에	4 ( 5.7)
재산증식	3 ( 4.3)
기타	14 (20.0)
계	70(100.0)

자료: 대우경제연구소, '한국가구패널조사'(1994)의 원자료

<표 4>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농촌주민들이 현거주지를 떠나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이다. 현재 농촌은 여러 면에서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생활여건이 도시에 비해 나쁘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은 현거주지를 떠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항목은 '직장이동'이다. 다음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로 '분가 및 합가'가 5명, '자녀교육 때문에'가 4명, 그리고 '재산증식'이 3명으로 응답되었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이주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먼저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5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거주지와 여러모로 생활환경이 다른 도시로 이주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의 생활여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표 5> 이주희망지

이주희망지	빈도수(비율)
현거주와 동일한 군지역	26 (37.1)
다른 군지역	1 ( 1.4)
도시 지역	37 (52.9)
미정	6 ( 8.6)
계	70(100.0)

자료: <표 4>와 동일

이제 이주를 희망하는 자와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자 사이에 주거지 생활환경 및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이제 이주를 희망하는 자와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자 사이에 주거지 생활환경 및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표 6>은 현주거지의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이다. 평가방법은 각 개인에게 ‘\_\_\_\_\_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의 생활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여 ‘매우 불만족스럽다’(1), ‘보통이다’(3), ‘매우 만족스럽다’(5), 그리고 각 항목의 사이에 각 2점과 4점을 주어 모두 5개 항목 중 하나를 선택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점으로 나타난 항목을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4점으로 나타난 항목을 ‘만족스럽다’라고 해석하기로 한다. 그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을 보면 ‘매우 불만족스럽다’와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이주 희망자의 경우 70명 중 24명으로 나타나 34.3%이고, 비이주희망자의 경우 798명 중 147명으로 나타나 18.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매우 만족스럽다’와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이주 희망자의 경우 70명 중 21명으로 나타나 30.0%이고, 비이주희망자의 경우 798명 중 293명으로 나타나 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매우 불만족스럽다’ 1점, ‘불만족스럽다’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스럽다’ 4점, 그리고 ‘매우 만족스럽다’를 5점으로 하여 각 경우의 가중평균치를 구하면, 이주희망자의 경우 2.96점, 비이주희망자의 경우 3.27점으로 나타나, 이주희망자의 경우가 현주거지에서 의 만족도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현주거지의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

	이주희망자	비이주희망자	계
1. 매우 불만족스럽다	6 ( 8.6)	32 ( 4.0)	38 ( 4.4)
2. 불만족스럽다	18 (25.7)	115 (14.4)	133 (15.3)
3. 보통이다	25 (35.7)	358 (44.9)	383 (44.1)
4. 만족스럽다	15 (21.4)	194 (24.3)	209 (24.1)
5. 매우 만족스럽다	6 ( 8.6)	99 (12.4)	105 (12.1)
계	70(100.0)	798(100.0)	868(100.0)
평균 만족도	2.96	3.27	3.24

t=2.50, d.f.=866, p<0.05

자료: <표 4>와 동일

이제 농촌거주자 중 현주거지에서 생활이 ‘매우 불만족스럽다’와 ‘불만족스럽다’ 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표 7>은 농촌거주자를 이주희망자와 비이주희망자로 구분하여 현주거지의 생활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이주희망자, 비이주희망자 모두 ‘교통수단이 안 좋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다. 다음으로 ‘편의시설이 멀다’와 ‘주변환경(깨끗함 등)이 안 좋다’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주희망자와 비이주희망자 사이에 현주거지에서 생활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표 7> 현주거지의 생활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이주희망자	비이주희망자	계
공해가 심하다		8 ( 5.4)	8 ( 4.7)
편의시설이 멀다	6 (25.0)	28 (19.1)	34 (19.9)
교통수단이 안 좋다	8 (33.3)	49 (33.3)	57 (33.3)
주변환경(깨끗함 등)이 안 좋다	6 (25.0)	27 (18.4)	33 (19.3)
교육여건이 안 좋다	2 ( 8.3)	19 (12.9)	21 (12.3)
기타	2 ( 8.3)	16 (10.9)	18 (10.5)
계	24(100.0)	147(100.0)	171(100.0)

$\chi^2=2.63$  d.f.=5 p>0.05

자료: <표 4>와 동일

이와 함께 ‘\_\_\_\_\_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  
 개 <표 6>과 같은 형식으로 답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먼저  
 매우 불만족스럽다’와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이주희망자의 경우는 44.4%이고,  
 비이주희망자의 경우 25.8%이다. 반면에 ‘매우 만족스럽다’와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사  
 람은 이주희망자의 경우 17.1%, 비이주희망자의 경우 30.1%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족도를  
 <표 6>과 같은 방식으로 가중평균치를 구하면, 이주희망자의 경우 2.61점, 비이주희망자의  
 경우 3.07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에서 보듯이 현주거지의 생활환경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가 이주희망자의 경우가 비이주희망자 경우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평가

	이주희망자	비이주희망자	계
1. 매우 불만족스럽다	10 (14.3)	59 ( 7.4)	69 ( 7.9)
2. 불만족스럽다	21 (30.0)	147 (18.4)	168 (19.4)
3. 보통이다	27 (38.6)	352 (44.1)	379 (43.7)
4. 만족스럽다	10 (14.3)	158 (19.8)	168 (19.3)
5. 매우 만족스럽다	2 ( 2.8)	82 (10.3)	84 ( 9.7)
계	70(100.0)	798(100.0)	868(100.0)
평균 만족도	2.61	3.07	3.03

t=3.53, d.f.=866, p<0.01

자료: <표 4>와 동일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다’와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전체  
 적으로 보아 ‘주택이 오래되어 낡았다’라는 이유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다음으  
 로 ‘주택시설이 미흡하다’와 ‘주택규모가 작다’라는 항목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희망자의 경우 ‘주택시설이 미흡하다’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비이주희망  
 자의 경우 ‘주택이 오래되어 낡았다’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양자간에 불만족하  
 는 이유는 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lt;표 9&gt;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이주희망자	비이주희망자	계
주택시설이 미흡하다	10 (32.3)	52 (25.3)	62 (26.2)
주택규모가 작다	6 (19.4)	41 (19.9)	47 (19.8)
주택이 오래되어 넓었다	9 (29.0)	81 (39.3)	90 (38.0)
햇볕,바람이 잘 안 들어온다	1 ( 3.2)		1 ( 0.4)
난방시설이 안 좋다	1 ( 3.2)	19 ( 9.2)	20 ( 8.4)
상 하수도 시설이 안 좋다	3 ( 9.7)	2 ( 1.0)	5 ( 2.1)
기타	1 ( 3.2)	11 ( 5.3)	12 ( 5.1)
계	31(100.0)	206(100.0)	237(100.0)

$$\chi^2=18.98 \quad \text{d.f.}=6 \quad p<0.01$$

자료: <표 4>와 동일

## V. 결 론

이제까지 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희망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현거주지, 즉 농촌을 떠날 의사가 강한가를 고찰하였다. 이 분석에 의하면 농촌거주자 중 타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계층, 즉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이주희망이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적자본 인구가동이론이 군지역 주민들의 이주희망 여부를 잘 설명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학력이 변할 때 이주희망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하는 한계효과를 계측하였다.

이주하려는 이유를 조사해 보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이주희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하여 현거주지의 생활환경 및 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이주희망자의 경우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일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이주할 계획이 있는가의 여부를 질문할 때 '앞으로 1년안에'라는 단서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인적자본이론이 이주희망 형성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1년 이내에 현거주지를 떠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질문 때문에 868명 중 70명만이 현거주지를 떠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거주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금전적, 심리적 비용이 소요된다. 비용 등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현거주지를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이은우, 1993, p. 108).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젊고 학력이 높은 계층, 즉 생산성이 높은 계층이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강도가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한국가가 안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지역별로 어느 정도 고른 분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한 지역에 인구분포가 지나치게 과밀하거나 지나치게 과소한 경우 여러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농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간 인구분포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농촌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러 유인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에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 교육, 의료, 문화, 도로 등 제반시설이 도시못지 않게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한국경제연구소, 『대우패널 데이터 설명서』, 1994.
- 최근우, 『韓國의 農村都市間 人口移動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 김민준 외, 『人口移動과 社會經濟發展(人口移動特別調査 深層分析)』,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86.
- Howles, S., "Migration as Investment: Empirical Tests of the Human Investment Approach to Geographical Mobi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52 No.4, November 1970.
- Donnell J. et al. *Migration from Rural Areas(The Evidence from Village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 Inchautegui, M.E., *A Human Capital-Contextual Model of Migration Decision Making*, Ph.D.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1988.
- Galuzny, R.L., "Determinants of Household Migration: A Comparative Study by Race and Poverty Level,"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57.No.3, August 1975.
- 김, 훈민(Hunmin), *An Analysis of Individual and Family Migration Behavior : The Case of Korea*, Ph.D. Thesis, Harvard University, 1988.
- 김, 재홍(Jae-Hong), *Divided Metropolis: Intra-Metropolitan Spatial Segmentation of the Labor Market*, Ph.D. Thesis, 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 , "Residential Mobility Intention by Tenure Type in Korea,"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4권 제2호, 1994.
- Saber, G. and R.X.Chase, "Interprovincial Migration in Canada as a Human Capital Decis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79 No.4, July/August 1971.
- Lee, Bun-Song, *Urbanization in a Rapidly Growing Economy: An Analysis of the Income Distribution Aspects of Korean Urbanization Problems*, KDI, 1991.
- , *Urbanization in a Rapidly Growing Economy: An Analysis of the Income Distribution Aspects of Korean Urbanization Problems*, KDI, 1991.
- Maddala, G.S., *Limited Dependent Variables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McDevitt, T.M. et al., "Migration Plans of the Rural Populations of Third World Countries: A Probit Analysis of Micro-Level Data from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Vol.20, No.4 July 1986.
- Mohanty, P.K., *Rural-Urban Migration and the Urban Public Economy in a Developing Country*, Ph.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91.
- Polachek, S.W. and F.W.Horvath, "A Life Cycle Approach to Migration: Analysis of the Perspicacious Peregrinator," R.G.Ehrenberg(ed.), *Research in Labor Economics*, Vol.1, 1977, JAI Press.
- Schaeffer, P.,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Job Mobility,"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5, No. 1, 1985.

Sjaastad, L.A., "The Cost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0 No 5, October 1962.

Yezer, A.M.J. and L. Thurston, "Migration Patterns and Income Change: Implications for the Human Capital Approach to Migration,"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42 No. 4, April 1976.